

[취재요청]

• 발신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공공운수노조
• 발신일	2022년 9월 27일(화)
• 제목	[취재요청] 직장 내 젠더폭력으로 사망한 여성노동자 추모문화제, '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 살해당했다'(9/27 저녁7시, 신당역10번 출구)
• 수신	귀 언론사 사회부
• 개최 일시·장소	2022년 9월 27일(화) 오후7시, 신당역 10번 출구
• 문의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나무 (장애여성공감, 010-5429-1399)

고인의 뜻 이어 직장 내 젠더 폭력 끝내야 여성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추모와 결의의 문화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장애여성공감이 주관
여성노동자, 장애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구조적 성차별과 만나는 현실에 대한 목소리 나눔

- 9월 14일 신당역에서 일하던 여성노동자가 사망한지 벌써 13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서울교통공사는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으며,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 서울시 제대로 된 조치도 없는 현실입니다.
- 이번 신당역 여성노동자 사망사건은 서울교통공사와 국가기관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살릴 수 있었기에 더욱 애통하고 참담합니다. 또한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한 사회에서 일터도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그동안 여성 및 다양한 소수자 인권에 주목해온 단체인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장애여성공감이 공동으로 오늘(9월 27일) 저녁 7시 신당역 10번 출구에서 <직장 내 젠더폭력으로 사망한 여성노동자 추모문화제-“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 살해당했다”>를 합니다.
- 직장 내 젠더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신당역 여성노동자를 애도하며, 무책임하고 가부장적인 기업과 국가에 대해 분노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성차별의 구조가 심해질수록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터에서 여성노동자 도시가스안전점검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과 성차별을 받는 이야기와 여성노동자 안전의 문제, 장애여성이 지하철과 일상에서 경험하는 구조적 성/차별의 현실, 성소수자 혐오와 여성혐오를 방관하는 스토킹처벌법 등 법제도의 문제 등 사회적 소수

자들이 구조적 차별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4. 섬진강가에 서식하는 사람 동물을 노래하는 옥수수님의 노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해 수어통역도 있습니다. 문화제 후 고인이 사망한 신당역 지하 추모공간까지 행진해서 갑니다. 애도와 투쟁의 결의를 담은 포스트잇을 붙일 예정입니다. 아래에 발언 등 추모제 순서를 덧붙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추모문화제 순서>

직장 내 젠더폭력으로 사망한 여성노동자 추모문화제,
'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 살해당했다'

- 사회 : 안나(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 애도의 묵념 : 직장 내 성폭력과 혐오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추모

1. 발언 : 서지원(장애여성공감)

2. 발언 : 김윤숙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지부장)

3. 발언 : 진성선(장애여성공감)

4. 발언 : 이드(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장)

5. 노래 : 옥수수

6. 발언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7. 발언 : 김미진(장애여성공감)

8. 추모의 행진 (엘레베이터가 있는 2번 출구까지 역사 밖에서 이동)

9. 애도와 투쟁의 결의 메시지 놓기

*수어통역이 있습니다.

▶ 때 | 2022년 9월 27일 저녁 7시, 곳 | 신당역 10번 출구

◦ 주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 공감

◦ 주최 : 공공운수노조